

[1960-01-04, 에버렛 스완슨이 침례교 총회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1960년 1월 4일

친애하는 총회 목사님께,

9년 전, 여기 시카고에 있는 센트럴 애비뉴 교회(Central Avenue Church)의 목사로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첫 편지를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고 수십 개의 교회가 부활했으며 총회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총회 목회자들, 총회 지도자들, 그리고 총회 관계자들 모두 저에게 매우 선하고 친절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훌륭한 단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초청을 많이 받았지만, 계속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총회 교회에 바쳤습니다.

저는 남미의 새로운 선교지를 제외한 모든 선교지를 방문하고, 모든 선교지의 영화를 제작해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관심을 강력하게 장려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금액이 국내외 선교를 위해 본부 사무실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세계구호위원회(World Relief Committee)에 대한 저의 관심은 그들이 센트럴 애비뉴 교회에 있는 저에게 첫 번째 후원 권유를 보내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1월은 우리 총회 집중 지원의 달입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우리 교회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 100달러 수표에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세계구호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동봉된 <컴패션> 뉴스레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일로 저를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총회를 사용하셨는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회가 세계 구호 사역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개인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많은 보육원을 통해 고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총회의 몇몇 훌륭한 리더들을 우리 기관의 자문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 또한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성경학교 및 청소년 사역위원회 소장인 제 형 로렌스 스완슨(Lawrence Swanson) 목사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형과 저는 같은 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사회와 모든 사무직원은 총회 소속 침례교 신자들입니다.

<کمپا션>의 다음 호에서는 연례 재무 보고서와 감사보고서(CPA)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우편물을 받아 보기 원하시면 동봉된 봉투에 표시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1960년도 그리스도를 위한 목사님의 신실한 수고를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1:8-11)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 대표, 에버렛 F. 스완슨 올림